

수 학 보 고 서

소 속	경영학과 (대학(학부)/전공)	
파 견 국 가	말레이시아	
파 견 대 학	Malaya University	
파 견 기 간	시작	2024년 3월 (년/월)
	종료	2025년 2월 (년/월)

준 비 과 정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 과정
	교환학생은 대학생 때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활동이라고 생각했기에, 오래전부터 꼭 한 번은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기간보다 최소 1년은 머물러야 그 나라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어학 능력도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환학생을 준비할 당시에는 3학년 1학기였고, 2학기까지 수업을 들은 후 다음 해에 교환학생을 가게 되면 1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규정상 마지막 학기는 반드시 본교에서 수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3학년 2학기를 휴학하고, 4학년 1학기 동안 교환학생으로 1년을 다녀올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파견교 지원 과정
	지원하기 전, 어떤 국가로 가야 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파견교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수도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생활하게 된다면, 그 나라의 수도에서 살아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수도는 보통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국가의 특색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예전부터 교환학생을 간다면 유럽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위치한 파견교들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그 도시들에 대해 알아보던 중, 부모님께서 쿠알라룸푸르 여행을 다녀오신 후 도시가 전반적으로 쾌적하고 좋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말레이시아에 대한 관심이 생겨 파견교 목록을 찾아보던 중, Universiti Malaya(UM)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UM에 대해 조사해보니, 2025년 QS 세계 대학 순위 60위에 오를 정도로 우수한 대학이었고, 말레이시아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전통 있는 학교였습니다. 또한 교환학생을 위한 버디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게다가 동남아시아 중심부에 있어 주변국 여행에도 용이한 위치였습니다. 부모님의 여행 이야기를 계기로 선택하게 된 파견교였지만, 지금은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p>파견국가 출국 준비 과정 (비자, 항공권, 준비물 등)</p> <p>비자 발급에는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 출국 전에 여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중간에 사진 파일에 문제가 있어 재제출하는 바람에 시간이 조금 더 걸렸지만, 출국 전까지 EMGS 절차의 70%를 완료하였습니다. 본격적인 학교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현지에 적응할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UM-WOW) 시작 일주일 전에 출국했습니다. 출국 후 일주일 동안은 학교 주변과 주요 관광지를 가볍게 둘러보았고, 비자 발급에 필요한 건강 검진도 받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연중 내내 덥고 습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 가벼운 반팔 옷을 주로 챙겼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LRT, MRT)이나 대학 강의실에서는 에어컨을 강하게 틀기 때문에, 후드티나 바람막이처럼 얇은 외투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이며 학교 규정에 따라 여러 건물이나 사원, 도서관 등에 출입할 때 반바지 착용이 금지되어 있어 긴 바지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열대 우림 기후 특성상 연중 비가 자주 내리는데, 특히 하루에 한 번은 소나기가 쏟아지기 때문에 우산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더운 날씨로 인해 수분 보충이 필수이므로 텀블러를 지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식당이나 화장실에 휴지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휴지도 꼭 준비해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p>
<p>파견 학교</p>	<p>공항 픽업 & 오리엔테이션</p> <p>저는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공항에 도착했기 때문에, 도착 픽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낮 시간대에만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낮 시간대에 도착한다면, 버디 친구들이 버스를 대관해 공항으로 데리러 오는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항 픽업을 통해 만난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지거나 룸메이트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p> <p>오리엔테이션은 UMWOW(UM Week Of Welcoming) 이라고 부르며, 개강 전에 약 5일간 진행됩니다. DAY 1에는 Opening Ceremony와 Booth Showcase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는 버디 친구들이 준비한 환영 인사와 다양한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Booth Showcase에서는 앞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들을 둘러볼 수 있고, 각 프로그램의 일정을 Whatsapp 그룹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DAY 2에는 Campus Tour가 진행됩니다. 캠퍼스 투어를 통해 학교 건물들의 위치를 익힐 수 있으며, 간단한 게임을 하면서 버디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UMGB(Universiti Malaya Global Buddies)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과 무대가 준비되어 있어,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양한 국가의 전통 춤 등을 배우고 마지막 날 무대에 올라 퍼포먼스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UMWOW는 교환학생 생활의 첫걸음을 여는 중요한 행사이니, 꼭 참여해 보시길 추천합니다.</p>

	<p>수업 & 학교 활동</p> <p>두 학기 모두 전공 과목 2개와 교양 과목 3개를 수강해, 총 15학점씩 이수했습니다. 전공 과목으로는 주로 마케팅 관련 수업(Global Marketing, Digital Marketing,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을 들었고, 교양 과목으로는 Elementary Malay와 Tai Chi 등을 수강했습니다. 제가 수강한 마케팅 과목들은 대부분 팀 프로젝트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그 외의 수업들도 기본적으로 팀 프로젝트와 발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lementary Malay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기초 말레이어 수업으로, 간단한 인사말, 숫자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표현을 배울 수 있어 매우 유익했습니다. 특히 여행 중 식당이나 야시장에서 숫자를 자주 사용하게 되므로, 최소한 1부터 10까지는 숙지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외에 학교 버디 활동으로는 UMGB(Universiti Malaya Global Buddies)가 준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Sports Club에서는 축구, 배드민턴,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이후에는 Sports Day라는 시합에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Creative Arts에서는 전시회나 미술관을 방문하거나, 간단한 예술 작품을 직접 만드는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자주 참여했던 활동은 Yumcha였습니다. Yumcha에서는 피크닉, 관광지 투어 등을 함께 하며 식사도 하면서 친구들과 친밀해질 수 있어 매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Popcorn Night은 학교 내 버디룸에서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고 간단한 간식을 나누는 활동으로, 편안하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p>
	<p>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 시설</p> <p>교환학생이 거주하는 기숙사로는 IH, KK10, KK12 등이 있습니다. 그 중 IH가 가장 시설이 나은 곳으로, 한국인들은 대부분 IH에 거주하며 다른 기숙사 배정 시 외부 숙소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IH는 4명이 한 호실(공용 주방, 거실, 화장실이 있고 방 두 개에 각각 침대가 두 개 있습니다)을 함께 사용하며 에어컨이 있습니다. 반면, KK10, KK12는 에어컨이 없으며 한방을 두 명씩 사용하고, 한 층의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용 주방, 화장실이 있습니다. 저는 IH 기숙사 선착순 배정에 떨어져 KK10으로 배정되었으나, 1-2주 간 학교 주변 호텔에 숙박하며 1년 간 계약할 집을 알아보았습니다.</p> <p>집을 알아볼 때는 말레이시아 부동산 사이트 iProperty, iBilik 등을 이용하였고, 맘에 드는 집을 발견하면 에이전트에게 WhatsApp으로 연락하고 매물을 보았습니다. 답장이 없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최대한 괜찮은 집을 발견할 시, 모두 연락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1년 단위의 계약을 선호하기 때문에, 6개월 교환학생들의 경우 집을 구하기가 더 어려운 편입니다. (주변 친구들 중, 기존 월세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대가로 6개월로 계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1년 교환학생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집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p>

	<p>니다. 집 계약 시 모든 과정들이 기록으로 남도록 중요한 내용은 WhatsApp 대화창에 남겨두도록 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 집의 내부를 영상과 사진으로 미리 남겨 두도록 합니다. 보통 보증금으로는 2달 치 월세와 Utility Deposit 등을 지불합니다.</p>
주 변 환 경	<p>거주지 주변 지역 정보</p> <p>보통 한국 교환학생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Bangsar South입니다. 이 지역은 Universiti 역 근처에 위치해 있어 버스를 타고 학교에 통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집값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 3-4명이 룸메이트를 구해 함께 거주하며 생활비를 절약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지내는 스튜디오를 구할 경우 보통 월세가 2,000-2,200링깃** 정도입니다. 저는 Universiti 역에서 한 정거장 떨어진 Taman Jaya 역 앞 레지던스에서 거주했습니다. Bangsar South와 LRT로 한 정거장 거리밖에 차이 나지 않지만, 월세는 훨씬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제가 살았던 곳은 1,400~1,500링깃 수준이었고, 가성비가 매우 좋았습니다. 아직 교환학생들 사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지만, Bangsar South 못지않게 살기 좋은 동네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는 식당, 패스트푸드점, 카페 등이 다양하게 있고, 집이 위치한 쇼핑몰 안에는 저렴하게 식료품을 구매할 수 있는 NSK 마트와 생활용품점인 MR.DIY도 입점해 있어 장을 보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매우 편리했습니다. 또한, 집 바로 옆에는 Taman Jaya Park라는 작은 호수 공원이 있어 산책이나 운동하기에도 좋았습니다. Taman Jaya 역은 PJ 노선 버스의 종점이기도 합니다. (해당 버스는 원래 무료였으나, 외국인의 경우 전용 앱을 통해 QR코드를 스캔하고 0.90링깃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역은 다양한 노선과 환승이 가능한 교통의 요지이기도 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p>
	<p>파견 대학 소재지 지역 정보</p>
	<p>말라야 대학교는 말레이시아의 수도인 쿠알라 룸푸르와 붙어 있는 셀랑고르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셀랑고르는 한국으로 치면 경기도와 비슷한 지역으로, 쿠알라 룸푸르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보통 대중교통이나 차로 1시간 이내에 주요 관광지와 명소에 갈 수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는 말레이시아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로,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다인종·다문화 도시로서 말레이계, 중국계, 인도계 주민들이 공존하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활기찬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평균 날씨는 열대우림 기후로 연중 고온다습합니다. 도심은 현대적인 고층빌딩과 전통적인 건축물이 조화를 이루며, 대표적인 랜드마크로는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Petronas Twin Towers), 메르데카 광장(Dataran Merdeka), 바투 동굴(Batu Caves) 등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MRT, LRT, 모노레일 등 다양한 노선이 잘 갖추어져 있어 비교적 이동이 편리합니다. 영어 사용이 보편적이며, 현지 음식은 다양하고 저렴해 학생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p>

	<p>다양한 쇼핑몰과 시장, 카페 등이 즐비해 여가 생활도 풍부합니다. 국제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이 잘 구성된 대학들이 많으며, 교육 수준도 비교적 높습니다. 특히 국제 교류가 활발해 외국인 학생으로서 적응하기에 용이한 환경입니다. 라마단, 디파발리, 중추절 등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있어 현지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관습을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열린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많아 교환학생으로서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p>
비 용	<p>등록금 (해당 학생만)</p> <p>명지대학교에 기존에 내던 등록금을 났으며, 학교에서 학기 당 70만원의 명지연수장학금을 주어 총 140만원을 받았습니다.</p>
	<p>기숙사 비용 (해당 학생만, 학기당)</p> <p>저는 기숙사를 이용하지 않았고 스튜디오 월세는 약 45만원 정도였습니다.</p>
	<p>추가 비용 (교재비, 보험 등)</p> <p>교재는 말레이어 교재 한권을 구입하였고 한화로 약 13,000원 정도였습니다. 그 외의 수업에서는 ppt자료로 수업하였습니다. 보험은 EMGS에서 제공되는 보험을 들었으면 다양한 종류가 있어 원하는 금액대로 선택하여 보험을 들면 됩니다.</p>
	<p>생활비</p> <p>저는 학교 외부에 스튜디오(한국의 오피스텔과 같은) 구해 1년 간 거주하였습니다. 월세는 RM 1500이었고 전기세와 수도세는 따로 지불하였습니다. 전기세는 보통 RM45 정도, 수도세는 2달에 RM30 정도 나왔습니다. 교통비는 보통 편도에 RM3 이하여서 외출할 때마다 RM6링깃 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랩을 탈 경우에는 RM10-20까지 지출했습니다.</p>
	<p>한달 평균 지출 비용</p> <p>한달 평균 지출 비용은 30-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약속이 많거나 외식을 많이 한 경우에는 더 나가고 집에서 요리를 해먹는 경우, 마트 물가는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라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여행을 가는 경우에는 여행 경비로 인해 기존 지출 비용보다 2배 이상 나가기도 했습니다.</p>
	<p>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p> <p>교환학생을 결심한 후, 어느 나라로 갈지를 두고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멀고 낯선 유럽에도 가보고 싶었고, 영어권인 미국도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막연한 로망에만 기대기보다는, 교환학생을 통해 내가 진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활동을 통해 가장 바랐던 것은 다양한 문화권의 친구들과 교류하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는 것이었습니다.</p> <p>그런 점에서 말레이시아는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쿠알라룸푸르는 제가 바랐던 조건을 모두 갖춘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벨기에, 일본, 인도</p>

네시아, 호주, 중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친구들과 교류하며 풍부한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었고, 생활 속에서도 영어를 자주 사용하며 언어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부정확한 버스 시간, 횡단보도가 없는 왕복 8차선 도로, 인도가 없어 걷기 힘든 거리 등 한국과는 다른 생활 환경은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은 오히려 제가 평소 얼마나 편리한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힘들고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마인드 컨트롤을 하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는 법을 배웠고, 익숙했던 일상에 대한 감사함도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낯설고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적응해가는 제 자신이 대견하게 느껴졌고, 떠날 무렵에는 이 도시와의 헤어짐이 아쉽기까지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1년은 제게 잊지 못할 경험이자, 앞으로의 삶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한층 더 성장했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도 넓어졌습니다.

사진 첨부 (최소 5장)



